

우리동네 미세먼지 주민들이 잡는다

광주 북구 '주민 참여 환경지도 통한 클린공동체 만들기' 40명 간이측정 교육...미세먼지·소음 정보 실시간 공유 화목보일러·생활쓰레기 소각 차단...저감방안도 모색

시도 때도 없이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선다. 광주 북구 주민들이 직접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 측정하는 뒤 상호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와 함께 직접 마을 곳곳의 소음까지 측정해 소음저감에도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20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북구 용봉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측정할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대기질 정보를 공유하는 '주민참여 환경지도(Map)를 통한 클린공동체 만들

기'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들이 직접 스마트폰과 연동한 이동형 간이 측정기로 동네 곳곳의 미세먼지량을 측정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전용 어플로 구청 홈페이지에 전송해 지역별, 위치별로 미세먼지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인구가동이 많은 전남대 후문 인근 등 용봉동을 시작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은 일곡지구, 양산지구 등으로 측정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 등도 미세먼지를 수시로 체계화 환경보호 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무등산 자락 마을인 망월동 분토마을 등은 일부 주민이 아궁이 등을 통해 수시로 태우는 생활쓰레기와 화목보일러의 불안전 연소 등에 따른 매연·악취 등으로 마을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곡지구 야산과 발 주변에서의 쓰레기 소각도 끊이지 않아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매캐한 냄새와 연기에 고통받고 있다. 북구는 지난 19일 용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용방법 안내 및 운영과정 시연 등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미세먼지를 측정할 주민대표는 12명이다. 북구는 오는 26일 2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미세먼지 수치 측정에 나설 계획이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지원 등 향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대상지역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북구는 또 내년엔 주민들

에게 이동형 간이 소음측정기도 보급해 마을 곳곳의 소음을 측정할 뒤 소음 저감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 북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광주 NGO 시민재단의 멘토링 과정에 참여하고, 조달청 등록 기준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필요한 기능만을 갖춘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와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개발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 'ICT를 통한 착한 상상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받은 국비 5000만원으로 추진됐다. 문인 북구청장은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될 정도로 지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을 계기로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마련해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함평군 주포면 한옥마을 주변 공원에 심어진 핑크물리가 가을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 앞에서 분홍빛 자태를 뽐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관상식물 '핑크물리' 예쁘다고 막 심지 마세요

핑크빛 인기 타고 식재면적 확산
광주·전남지역만 1만2297㎡
외래식물, 위험성 검증 안돼 우려
'핑크물리'가 조경용 식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식재 면적이 우후죽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핑크물리는 곡성 삼진강 기차마을, 함평 자연생태공원 등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래종인데, 생태계 교란 등 위험성을 검증할 시간도 없이 급속히 식재면적이 확산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지방자치단

체와 공공기관 주도로 핑크물리를 심은 면적은 총 11만1988㎡로, 축구장 면적의 15.7배에 달한다. 광주에서는 공무원교육원 들레길, 농업기술센터 입구, 장수천 근린공원, 송정IC 주변에 심어졌으며 면적은 569㎡다. 전남에서는 여수 화장동 선사유적공원, 여수시 학동 용기공원, 나주시 빛가람동, 곡성군 삼진강기차마을, 함평 자연생태공원에 심어졌는데 총 재배면적은 1만2297㎡에 이른다. 개인이 직접 수입해 심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내 핑크물리 재배 면적은 이보다 훨씬 넓을 것으로 보인다. 핑크물리는 북아메리카 원산 벼과 식물로 주로 미국과 멕시코 등에 분포한다. 한국에 들어온 지는 4년 가량 됐다. 원에

종으로 수입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식재되고 있다. 하지만 핑크물리가 국내와 기후·환경이 다른 곳에서 자란 외래식물이고 생명력이 강해 국내 토종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지만, 위험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창현 의원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식물을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심어 우려스럽다"라면서 "국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환경부가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 29~30일 5·18문화센터

국내외 인권운동 과정을 통해 5·18을 세계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리가 열린다. 5·18기념재단은 오는 29~30일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홀에서 '5·18기념재단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횡단하는 5·18, 세대와 세계의 경계를

넘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5·18을 연구하는 해외 석학과 국내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해 강연과 토론을 펼친다. 제1부에서는 문경수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의 '이행기정의와 민주주의',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의 '촛불로 비춘 1980년 오월 광주'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보훈청, 독립유공자 故 이병호·이지봉 대통령 표창

광주지방보훈청이 20일 독립유공자 고(故) 이병호(1896-1975) 지사와 고(故) 이지봉(1899-1970) 지사의 유가족에게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이병호 지사는 1925년 9월 의열단 부단장인 이종암을 숨겨줬다가 1년여 옥고를 치렀다. 이지봉 지사는 영암보통학교 재학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체포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다. 1919년 4월 10일 독립만세운동 계획을 세우고 태극기를 제작하던 이 지사는 거사 당일 교사에게 태극기를 압수당하자 영암시장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이병호 지사의 자녀 이정숙(사진 오른쪽)씨와 이지봉 지사의 자녀 이재완씨는 "늦었지만 아버지의 공훈을 인정받아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주용 광주보훈청장은 "송고한 독립정



신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 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3, 해질 17:24, 달뜨기 16:24, 달짐 04:40. 우산 챙기세요. 오후부터 비가 내려 모레 새벽 그치겠다. 광주 가온호리고비 4/13, 보성 가온호리고비 0/12, 목포 가온호리고비 5/13, 순천 가온호리고비 4/14, 여수 가온호리고비 8/13, 영광 가온호리고비 1/13, 나주 가온호리고비 0/14, 진도 가온호리고비 3/14, 완도 가온호리고비 6/14, 전주 가온호리고비 4/12, 구례 가온호리고비 0/13, 군산 가온호리고비 4/11, 강진 가온호리고비 2/14, 남원 가온호리고비 0/12, 해남 가온호리고비 0/13, 흑산도 가온호리고비 10/15, 장성 가온호리고비 1/13. ◇바다 날씨: 오전 풍향 남동~남, 파고 0.5~1.0, 오후 풍향 북~북동, 파고 0.5~2.0. ◇생활지수: 뇌졸중 높음, 감기 높음, 보통, 미세먼지.

광주 올 첫 영하권 기온...내일 새벽까지 5mm 내외 비

당분간 쌀쌀한 날씨 지속
20일 광주 일부 지역이 영하권 기온으로 떨어지며 올가을 첫 얼음이 관측됐다. 21일 오후부터 광주·전남 지역에는 5mm 내외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22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추위가 찾아올 예정이며, 비가 내린 이후부터 더욱 쌀쌀해지겠다"고 밝혔다.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사에서는 올해 첫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광역시 인구조번복지협회 | 광주전남지회.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직장은치문화 제로법, 슈퍼맘 방지법, 육아대디 지지법, 육아훈수 주의법, 든든육아 동참법.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